

01 교회소식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지원 속에 치과 치료를 받아 행복을 찾은 성도들과 우리 교회 닛시오케스트라 '런치 콘서트' 소식.

02 생명의 말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 말거진 일 이상을 해내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며, 하나님 뜻에 맞도록 순종하고 온 집에 충성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다(2)

하나님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 연합대성회를 통해 크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땅끝 이스라엘에 복음이 회귀되게 하셨다.

04 간증

"제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다니!"

5월 은사집회시,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걷게 된 인도 리타 성도와 급성 후두염을 치료받은 김영은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93호 2019년 6월 1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이제 마음껏 먹고 웃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임플란트 등 무료 치과 치료로 새 삶을 얻은 성도들



“치아가 좋지 않아 잘 씹지 못하니 소화가 잘 안 되고 몸도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건강합니다. 자녀도 못해 준 일을 당회장님께서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지원으로 이번에 임플란트와 크라운, 하악 부분 틀니를 마친 손정오 집사(71, 남)의 고백이다.

연로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안타까워

하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지원 속에 구제위원회에서는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및 주의 종과 교구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 치과 치료를 진행해 왔다.

2018년 전반기부터 174명에게 임플란트, 크라운, 틀니 등 치과 치료를 해 왔으며, 6월에 마쳐질 예정이다.

권태덕(69), 남준옥(67) 집사 부부는 함께 지원을 받아 건강한 치아를 갖게 되었다. 남편 권 집사는 “먹을 때는 물론 말할

때도 목소리가 썩지만 재정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과일 하나 제대로 씹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 당회장님의 도움으로 이제는 치아 걱정도 안하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자신감이 없었던 수희남 집사(45, 남, 해외교구 몽골)는 임플란트 2개와 크라운 8개, 상악 부분 틀니를 지원받고 치아 고민이 해결

되자 자신감까지 되찾게 되었다.

임플란트 5개와 틀니를 지원받은 김준옥 집사(52, 여)는 치아로 인한 각종 불편함이 사라졌다며 감사해했고, 위아랫니 충치를 모두 뽑고 틀니를 한 이정수 집사(49, 남)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입을 가리지 않고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7년간 질병과 가난의 고통을 절감했기에 교회 개척 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함꼐 구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으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해주었다.

이에 구제위원회를 통해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성도 1천여 가정에 매월 생활보조비 및 쌀과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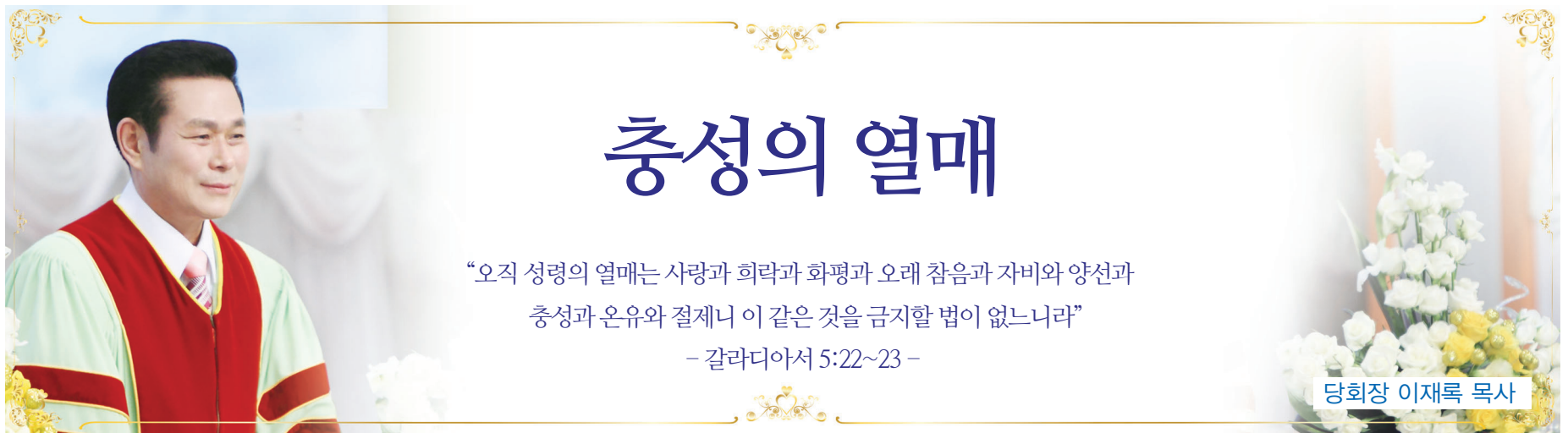
또한 신대방 2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 6곳과 복지관 2곳에 매월 쌀 70포대를, 전남 장성군 남면 주민 15명에게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닛시오케스트라 런치 콘서트

지난 6월 13일 낮 12시 30분, 닛시오케스트라 'Lunch Concert'(런치 콘서트)가 닛시오케스트라실에서 열렸다. 런치 콘서트는 2011년부터 교회 직원들을 위해 열리고 있으며, 이날은 모차르트의 '영화롭도다', 헨델의 '하프 협주곡',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르로이 앤더슨의 '타자기 협주곡', 찰스 가브리엘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닛시오케스트라는 1992년 3월 1일에 창단되어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희년대회 등 각종 교계 연합행사, 국가연례 조찬기도회와 한려 친선 음악회 등 국가 차원의 연주 및 해외 연합대성회, 교회 각종 행사 등 복음 전파와 기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충성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그 행위만으로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생명을 다하기까지 열정을 쏟는다 해서 온전한 충성이라 하지도 않지요.

만약 가정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요, 보석같이 사랑스러운 향이 납니다. 한결같은 마음의 향이 나고 우직하고 묵묵한 순종의 향, 신실한 마음의 향이 나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1. 사랑과 정성 다해 맡겨진 일 이상 해내는 충성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잘 감당했다 해서 '충성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완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샅을 받은 만큼 한 것이므로 '충성'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분야를 감당하든지 '나는 이만큼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넘치게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역지로 하거나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크게 기뻐하므로 자기 재물을 허비하며 자기 자신까지 허비했지요 (고후 12:15). 영혼들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또 드리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명을 기쁨과 사랑으로 넘치게 감당할 때 참된 충성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분야에 있어서도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모세의 경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출 32:31~32).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 백성을 인도했기에 그들이 잘났했을 때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는 책임이

없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떠올리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신다 해도 모세처럼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긍휼을 떠올립니다. 그러기에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 인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저를 보셔서라도 다시 기회를 주세요”라는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2. 죄를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성결 이루는 영적 충성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 사명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충성했다고 하지만 영적인 충성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충성이란 꾸준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비진리, 악, 불의, 불법 등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비진리에 속한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죽이고 성결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충성이지요. 마음의 할례를 끊임 없이 해 나가면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마음의 연단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사명을 놓지 않지요. 사명 감당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까닭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할례를 소홀히 하면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명을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회복되면 다시 열심히 하기를 반복하지요.

이렇게 신앙에 기쁨이 있으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 해도 충성스럽다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충성

의 열매는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영적인 충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하나님 뜻에 맞도록 순종하는 충성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맡은 분야에 열심을 낸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한다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나 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도 자기 생각과 욕심을 좇아 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의 뜻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친척이요 군대장관이던 요압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곁을 지키며 생사고락을 같이했습니다. 지혜도 있고 용맹해 다윗이 원하는 일들을 잘 처리해 주곤 했지요. 요압 사람의 성을 취할 때는 자신이 거의 다 정복한 후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취하게 하여 그 공로를 다윗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기 생각이나 유익에 맞지 않을 때는 다윗의 뜻을 어기곤 했지요. 아브넬이 항복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다윗은 민심 수습을 위해 그를 환대해 돌려보냈지만 요압은 아브넬을 뒤쫓아가 죽입니다. 예전에 전투에서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너그럽게 대하라는 다윗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지요.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거역하니 다윗에게는 요압이 늘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결국 요압은 솔로몬에게 반역하다가 죽고 맙니다. 평생 다윗을 섬겼지만 반역자로서 일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여 충성할 때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시예배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장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4. 모든 분야에서 두루 충성하는 온 집에 충성

자신이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두루 충성하는 것을 온 집에 충성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양 떼로서, 직분자로서, 가정, 직장, 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지요.

‘몸은 하나인데 직분이 많으면 어떻게 모든 분야에 충성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로 변화되는 만큼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시간을 투자한다 해도 모든 것을 진리로 심을 때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에 선을 이룬 사람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가 많다 해도 한 가지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지요. 매사에 최선을 다해 정성껏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 진실을 느끼므로 함께해 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써 줘서 고맙게 여기지요.

이렇게 마음에 선이 있는 만큼 온 집에 충성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진리 안에서 마음의 성결을 이루며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어 완전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기동같이 쓰일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가까이 거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3 러시아 연합대성회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 6 >>>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다(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전 세계로 전파된 ‘러시아 연합대성회’**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모인 ‘이재록 목사 초청 2002 인도 연합대성회’에 참석해 큰 은혜를 받은 러시아 이고르 니키티ن 목사는 이재록 목사를 러시아로 초청해 ‘2003 러시아 연합대성회’를 개최했다.

러시아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 성회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건립 300주년 기념 공식행사로 지정되어 첫날부터 올림픽 스타디움이 초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이재록 목사가 3일 동안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에 대해 선포하며 기도해 준 결과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기적의 현장은 27개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 TV, 12개 위성을 통해 150여 개국에 생방송되었다. 또한 현지 의사들이 참석해 치료받은 사람들을 검진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이스라엘 선교에 성큼 다가선 ‘이재록 목사 초청 2004 독일 연합대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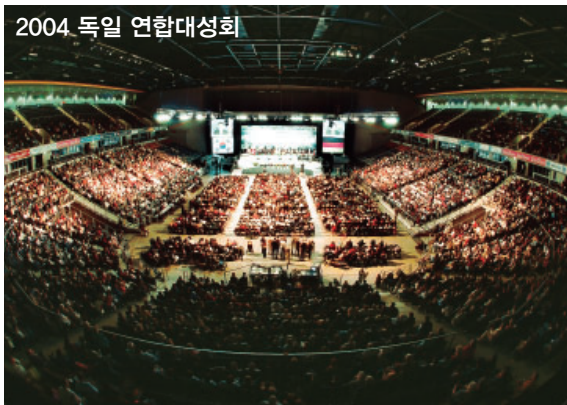
독일의 알렉산더 엡 목사는 러시아 연합대성회에 참석한 후, 종교개혁의 발상지이지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유럽을 깨우고자 ‘독일 연합대성회’를 준비한다.

2004년 5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재록 목사는 더 깊은 차원의 권능을 나타내며 <근본의 소리를 말하라>는 주제로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개최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또한 전 세계 만민의 영혼 구원을 위해 GCN(세계기독방송네트워크)방송과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을 구축한다.

그리하여 2004년 10월에 열린 독일 성회는 첫날부터 실내체육관이 가득 차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EU(유럽연합)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무수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역사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던 독일 민족이 회개하도록 이끄셨다.

무엇보다 독일 성회에서 은혜받은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은 이스라엘 성회를 적극 돕고자 한다. 조직위원



2004 독일 연합대성회



2004 페루 연합대성회



2006 콩고(DRC) 연합대성회



2006 미국 뉴욕 연합대성회

장 알렉산더 엡 목사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참석한 목사는 후일 이스라엘 선교의 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심으로 해외 연합대성회를 친히 이루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셨다.

또한 유럽에 이어 중남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페루를 선택하셨고, 권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콩고(DRC)에도 사랑의 손길을 펼치셨다.

*** 이스라엘 선교의 교두보가 된 ‘이재록 목사 초청 2006 뉴욕 연합대성회’**

미국은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바탕으로 건국되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요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깨우쳐 회개시키고 전 세계로 그 여파가 전해지게 하여 이스라엘 선교를 이루기 위한 섭리 가운데, ‘이재록 목사 초청 2006 뉴욕 연합대성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미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GCN방송 사역을 시작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2006년 7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연합대성회가 개최되도록 주관하신 것이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생중계된 뉴욕 성회는 이스라엘에도 전해졌다. 이 성회는 유대인들이 다수 참석했는데 수천 명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스라엘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회 소식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계 유대인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성회를 시청하여 간증의 소식이 이어졌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서도 선교팀을 기다리는 소망과 기대가 팽배해졌다.

그 이듬해 2007년 7월, 마침내 복음의 오지인 이스라엘 선교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철옹성과 같이 단단한 중동의 벽을 허물고 이스라엘에 복음이 회귀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 2000년 이후 우간다,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인도, 러시아, 독일,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연합대성회를 개최하게 하신 것이다.

“교통사고로 걷지 못하던 제가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리타 성도 (60세, 인도 마티아 프라데시 주)



2018년 4월, 가족과 함께 이동하던 중 뒤차가 고속으로 추월하면서 저희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차에 있던 사람들은 차량 화재로 인해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하였지요.

다행히 저희 가족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구출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 사위는 경상을 입을 반면 저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대퇴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은 후 혼수상태에서 3일 만에 깨어났지만 이틀간 말을 하지 못했지요. 의사는 뇌수술후유증으로 인해 마비가 올 수 있으니 대퇴골 수술을 한다 해도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대퇴골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전신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지요. 약을 먹어도 통증은 멈추지 않았고, 물리치료를 받아 보아도 전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인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출

근은 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2시간밖에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누워서만 지내니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구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까지 들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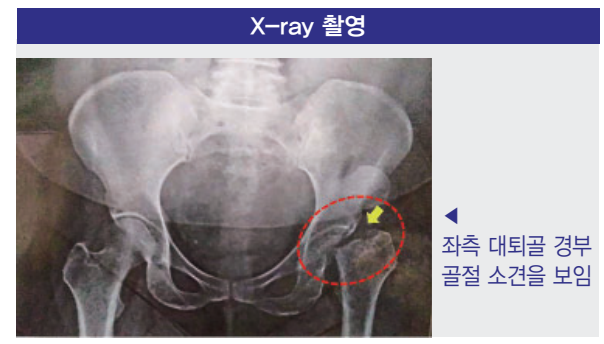
이런 상황을 안 남동생 가족의 전도로 저는 2019년 4월, 텔리만민교회 유튜브 ‘GCNTV 힌디’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은사집회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수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후 치료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랍고 부러웠지요.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5월 은사집회를 앞두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십자가의 도’ 24편을 모두 듣고, 힌디어로 통역되는 GCNTV 힌디로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드디어 5월 31일, 금요일아침예배에 기대와 설렘으로 참석하였습니다.

1부 예배 후 2부 은사집회 때 이수진 목사님이 전체 환자를 위해 손수건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제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의사도 포기했던 제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순간에 치료받는 것을 보며 가족들

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유튜브 GCNTV 힌디를 통해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재록 목사님의 다른 설교도 듣고 싶어 하지요. 저도 다른 설교들을 더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해 걷지 못하고 불구로 살 수밖에 없던 저를 치료해 주신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금성 후두염을 치료받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영은 집사 (40세, 2가나안선교회)

찬양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저는 2019년 3월 초부터 가나안선교회 화요찬양예배 코러스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복이 몸에 맞지 않아 식이요법 다이어트로 10kg를 감량하고 나니 욕심이 생겨 4월 10일부터는 다이어트용 한약을 복용하였지요.

그런데 입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 가는 듯했으며, 목소리가 가라앉고 목 안에 이물감까지 느껴지면서 나중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 23일 병원에 가보니, ‘금성 후두염’이었습니다. 의사는 “성대가 염증으로 빨강게 붓고 혹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성대 결절 전단계입니다”라고 하면서, “혹이 굵으면 수술해야 하니까 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당

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 통화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4월 말에는 ‘아’ 하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

다. 저는 10년 전 신종 플루로 사경을 헤멜 때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고 단번에 치료되는 체험을 했기에, 더욱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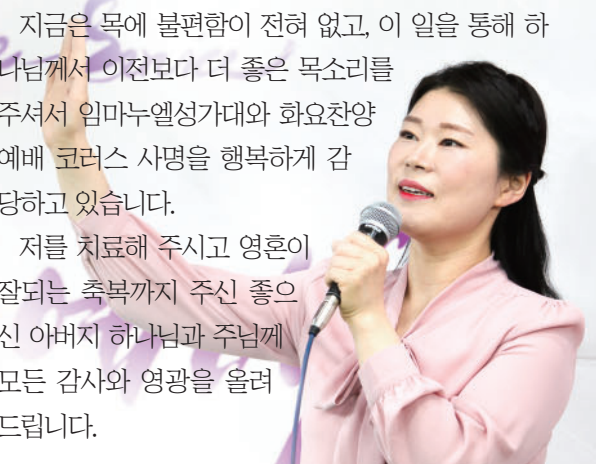
5월 7일부터 직장에 연차를 내고 만민기도원 오전 환자집회와 1시 낮 기도회에 참석해 제 신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다니엘철야 400일 작정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축복해 주신 일이 떠올랐지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했던 일들이 생각나 통회자복을 하니 목소리가 조금씩 호전되어 갔습니다.

5월 13일에는 목소리가 더 잘 나오고 통증도 사라졌지요. 더 온전히 치료받고자 3일 금식을 한 뒤, 31일 금요일아침예배 2부 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수진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실 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깨달으며 회개하였지요. 동시에 성령의 불이 임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지더니 목소리가 아주 잘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목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임마누엘성가대와 화요찬양예배 코러스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고 영혼이 잘되는 축복까지 주신 좋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자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9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감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